

공공정보디자인의 비구상적 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on-Figurative Expression of Public Information Design

주 저 자 : 김학민 (Kim, Hak Mi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sayyess@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sr.2020.4.82>

접수일자 2020. 12. 18 / 심사완료일자 2020. 12. 23 / 게재확정일자 2020. 12. 26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xperiment with and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public information design beyond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information design and how it can be implement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a theoretical study to this end, we mention the importance of effective information design with the definition of public information design and the changing times, and theoretical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new information design methodology through artistic definitions of figurative and non-figurative design. Afterwards, we looked at the traditional information design and pictogram as well as the semantic aspects, and compared the actual conditions and examples applied to the garbage collection system in major domestic and overseas citi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we proposed a new information design process. Beyond simply re-designing a single public pictogram, we hope that this research's suggestion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design to the next level will lead to further research.

Keyword

Information Design(정보디자인), Non-Figurative Design(비구상 디자인), Pictogram(픽토그램), Recycling Bin(분리수거함).

요약

본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이 전통적 방식의 정보디자인의 틀을 벗어나 어떠한 방법론으로 다른 관점의 정보디자인을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과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연구로 공공정보디자인의 정의와 시대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보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구상과 비구상에 대한 예술적 정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디자인의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전통적 정보디자인과 픽토그램을 조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적 측면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적용된 현황과 예시들을 국내외 해외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보았고,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정보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단순히 공공 픽토그램 하나를 리디자인(re-design)하는 것을 넘어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이 후속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정보디자인과 공공정보디자인
- 2-2. 구상과 비구상
- 2-3. 픽토그램과 정보디자인

3. 사례연구 및 분석

- 3-1. 연구대상 설정
- 3-2. 국내외 사례분석

4. 비구상형 픽토그램 디자인

- 4-1. 디자인 프로세스
- 4-2. 디자인 개발 및 적용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정보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분야 중에서도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디자인분야이다. 우리는 공공정보디자인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물건을 사고,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공유한다. 어떠한 정보디자인보다 시민의 환경과 안전, 그리고 한 나라와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디자인은 오랜 동안 많은 시각디자이너들의 역할이자 의무였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황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매체기술의 발전에 최근에는 문화적 현상까지 더해져 정보디자인은 단순히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감성이나 콘텐츠허까지도 담아내야하는 수준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 공공디자인이 단순히 도시를 정비하고 재단장하는 도시정비 차원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이 전통적 방식의 정보디자인의 틀을 벗어나 어떠한 방법론으로 다른 관점의 정보디자인을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과 가능성을 따져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의 중요한 한가지로 예술과 디자인에서 새로운 시각의 탄생의 요인이었던 비구상적 표현방식을 탐구하여 접목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정보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시킬 대상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1회용품과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표기되어 있는 정보디자인을 재구성하여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공공디자인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해 본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디자인의 정의와 시대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정보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구상과 비구상에 대한 예술적 정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디자인의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전통적 정보디자인과 픽토그램을 조형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적 측면을 살펴 보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적용된 현황과 예시들을 국내와 해외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해본다. 이후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정보디자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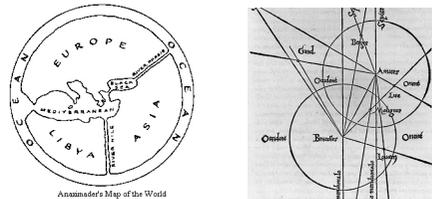
를 진행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디자인과 공공정보디자인

공공정보디자인은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도 심미적으로 가공하여 목적을 보다 쉽고 빠르게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과학이라는 정보디자인 본래의 정의 이외에 공공의 이익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외형적 모습을 만드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진다.

인간이 기록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보의 표현은 인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15세기 이후 신대륙의 발견과 르네상스, 그리고 과학혁명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지도와 다이어그램은 정보디자인 개념의 중요한 발전요인이 되었다. 19세기 이후 산업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된 정보는 보다 쉽고 빠른 소통을 원했으며 20세기 이후 등장한 디자인의 개념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발전한 시각디자인의 원리는 데이터를 보다 의미 있게 조직화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게 하였고 정보디자인이란 개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웹이 정보미디어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보의 공급과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고 디지털미디어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점차 정보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새로운 가치로 정의하게 하고 있다.



[그림 1] 아낙시만드로스(1)의 세계최초의 세계지도(B.C 610-546)와 겐마 프리시우스(2)의 삼각측량에 관한 다이어그램(1533)

2-2. 구상과 비구상

- 1) Anaximandros (BC 610-BC 546).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의 철학자.
- 2) Gemma Frisius(1508-1555). 네덜란드의 의사, 수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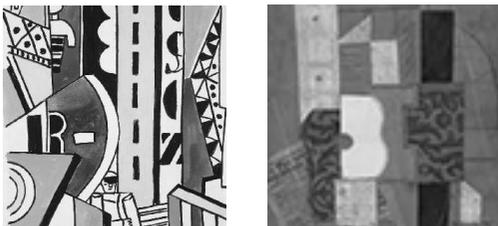
예술은 형태에 따라 크게 구상(Figurative)과 추상(Non-Figurative)으로 나누어진다.

인물을 포함하여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미술은 구상미술이라고 정의하는데, 다시 말해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미술이다. 그와는 반대로 추상미술은 자연을 참조하지 않는, 자연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는 작품을 말한다. [그림 2]의 왼쪽 렘브란트 작품에서는 인물과 배경의 자연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른쪽의 몬드리안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다. 오직 순수한 형태인 선과 면, 그리고 색채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2] 렘브란트의 구상예술과 몬드리안의 추상예술

비구상미술은 이 두 가지 분류의 중간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거부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태는 갖추고 있는 표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의 입체파의 그림들을 보면 추상파의 그림과는 달리 구상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형태는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대미술에서는 구상과 추상 사이에 수많은 다양한 미술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각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중요한 정보디자인 방법론으로 사용될 구상과 추상, 그리고 비구상의 개념은 4장의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그림 3] 비구상예술 : 페르낭 레제<도시>, 피카소<기타>

2-3. 픽토그램과 정보디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은 그 어원에서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 와 전보를 뜻하는(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 행위, 개념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대상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쉽고 빠르게 인식하도록 만든 그림 문자이다. 최근의 디지털미디어에서는 아이콘(icon) 이라는 개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픽토그램과 아이콘은 텍스트가 아닌 상징적인 그림과 기호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픽토그램이 공간이나 인쇄에 사용되는 것에 비해 아이콘은 전자적 디스플레이에 사용된다.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의 사용은 문자정보를 해독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정보처리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문자표시와 비교하여 화면에 더 많은 정보와 의미를 담을 수 있게 한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인들은 아무런 설명서 없이도 신기술을 자기 손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의 사용은 언어나 문화와 상관없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공디자인에서 픽토그램이나 아이콘의 디자인이 중요한 것은 정보디자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 4] 공항의 픽토그램과 아이폰2 의 아이콘

3. 사례연구 및 분석

3-1. 연구대상 설정

공공정보디자인의 비구상적 표현에 대한 디자인의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픽토그램을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과 분리배출이 필요한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늘고 있어 이를 인지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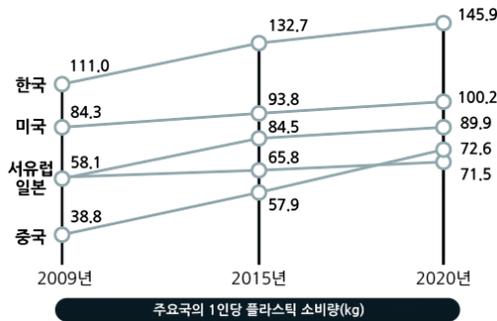
[그림 5]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재활용가능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521t 으로 전년대비 9.1% 상승했으며, 항목별로는 플라스틱류 18.1%, 종이류 14.3%, 비닐류는 10.0% 등으로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림 6]에서 보여 지듯이 한국은 주요국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에서도 미국과 서유럽은 물론 중국보다도 그 양이 2배로 재활용품 관련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코로나19 이후 분리수거가능 쓰레기 배출 증가도

따라서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분리배출에 대한 의미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 홍보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기능적인 부분 뿐 만 아니라 심미적인 부분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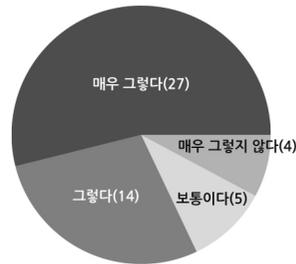
[그림 6] 주요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디자인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와 분리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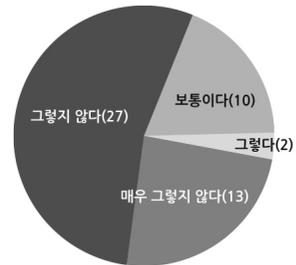
선행연구³⁾에 의하면 일반시민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3) 정미정, 재활용분리수거시설의 그래픽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3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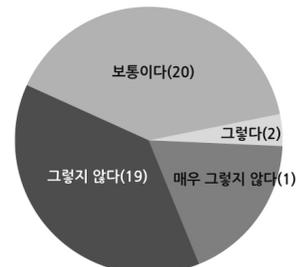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4%의 사람들이 분리수거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답을 하였으나 관련 설문에서는 실제로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써 분리수거함에 대한 인식이나 디자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지는데 [그림 8]의 결과에서 보듯 우선 분리수거함은 그 기능은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으나 주변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분리수거함에 표시된 픽토그램이나 기타 그래픽 요소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7] 분리수거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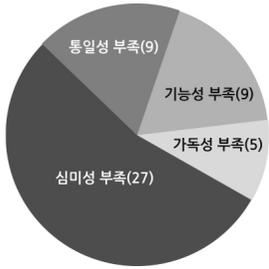


[그림 8] 분리수거함이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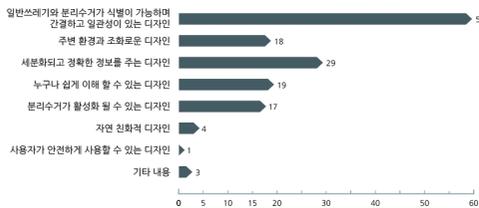
[그림 9] 분리수거함 그래픽 이해도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실은 분리수거에 관심이 높으면서도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거나 분리수거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심미성의 부족이다. <그림 10>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놓여 있는 분리수거함이 환경을 해치고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적으로 우수한 수거함을 원하는 동시에 보기에도 좋고 인지하기에도 용이한 디자인을 원하는 것이다.



[그림 10] 분리수거함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이유

보다 구체적으로 분리수거함에 필요한 디자인요소들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면, 간결하고 일관성이 있는 디자인(39%), 세분화되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디자인(19%),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12%) 등으로 심미성을 갖춘 정보디자인의 요소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분리수거함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이유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우리사회의 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고 인식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에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곧 디자이너의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공디자인의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픽토그램을 새롭게 제안하여 그 효과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3-2. 국내외 사례 분석

분석의 기준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한 분리배출 표시도안을 기준으로 국내외 해외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표기되어있는 픽토그램 사례를 비교하였고,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구상과 비구상의 조형원리를 적용하여 구분하였다.

지침에 의하면 분리배출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류, 유리 로 구분되어 있고 시각적으로는 재활용을 상징하는 형태 안에 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구분	표시도안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종이팩	
종이 (의무 대상 제외 품목)	※ 지정신청 후 도안사용가능
유리	

[그림 12] 한국환경공단의 분리배출표시 도안

3-2-1. 문자형 분리배출 표시

문자형 분리배출 표시제품은 어떠한 픽토그램이나 시각적 설명 없이 문자정보로만 분리항목을 표시하고 있는 수거함이다. 국문과 영문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문자형 분리배출표시 사례

문자형 분리수거함의 경우 분류항목은 환경공단의 지침을 대부분 잘 따르고 있으나 문자의 크기나 서체,

컬러의 적용 등은 각 지자체나 거주지역단위로 일정한 기준이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어 어느 정도는 통일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문자형의 경우 관리와 운영상태가 허술하여 상대적으로 청결도가 매우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3-2-2. 구상형 분리배출 표시

구상형 분리배출 표시제품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수거함이다. 픽토그램만 사용되기 보다는 문자정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픽토그램 자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이 역시 공공정보디자인 측면에서 일관된 규정이 제시 되어야 한다. 구상형은 문자정보만 있는 수거함과는 달리 매우 심미적이고 시각적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림 14] 국내 지자체의 구상형 분리배출표시 사례

3-2-3. 비구상형 분리배출 표시

비구상형 분리배출 표시제품은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수거함이지만 대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상형 픽토그램과는 달리 상징적 의미를 가진 형태로 표현된다. 수거 품목의 형태나 단면, 배출되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조형요소를 가진 도형을 사용한다. 구상형에 비해 직관적 인지도는 떨어지나 심미적 수준이나 디자인요소로서의 차별성, 독창성 등의 관점에서는 매우 우수하게 평가된다. [그림 14]에서 보여 지는 비구상형 픽토그램⁴⁾의 수거함은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상의 인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구상형 픽토그램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단의 투입구는 폐기물의 외형을 반영한 다양한 크기의 원과 다각형을 이용하여 구상적 픽토그램이 아닌 비구상적 조형요소를 사용하고 있고, 본체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상형 픽토그램을 넣어 비구상형이 가지는 모호성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비구상형 표시의 사례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는데 아마도 이러한 문제

4) 홍콩 폴리텍대학의 분리수거함 디자인

를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비구상형 분리배출표시 사례

이상의 사례조사 및 분석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문자형은 분리수거 항목에 대한 인지는 빠른 반면 심미성이나 독창성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익숙한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상형은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상징적인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는 심미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픽토그램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구상형은 국내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마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지길 기대해 본다.

[표 1] 분리수거 픽토그램의 형태별 사례

구분	예시	비고
문자		문자로 분리수거 항목 표시
구상		구상적 이미지로 분리수거 항목 표시
구상 + 비구상		구상적 이미지와 비구상적 이미지로 혼용하여 표시

4. 비구상형 픽토그램 디자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공공정보디자인 개발을 수행하였다. 우선 분리수거의 항목은 환경공단의 수거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가정과 사무실 등 일상의 공간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일반쓰레기, 종이류, 비닐류, 투명페트 등으로 우선 선정하고 캔과 병, 그리고 유리소재는 배출량을 고려하여 한 품목으로 종합하여 재구성 하였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증가로 인한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폐건전지 항목을 추가하여 분리수거의 효용성을 높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로는 실물의 형태와 크기를 바탕으로 구상화 과정을 거쳤으며 1차 비구상화 단계에서는 기본도형으로 실물을 기호화 하고 2차 비구상화 단계에서 최종형태로 확정하였다.

[표 1] 분리수거 픽토그램의 비구상화 프로세스

실물	구상화	비구상화 1단계	비구상화 2단계
			

비구상화 과정에서는 실물의 외형적 특성 뿐 만 아니라 폐기물이 분리수거함으로 버려지는 상황에서의 형태적 특성도 고려하여 가능성을 높이고 직관적으로도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일반쓰레기의 경우 불특정 다종의 형태가 혼재함을 상징하기 위하여 1차 비구상화에서는 다양한 도형으로, 그리고 2차 비구상화에서는 모든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인 사각형으로 디자인하였고, 종이류의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4용지의 형태가 구겨지거나 접혀지지 않은 상태로 투입 될 수 있도록 선형도형을 원형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종이류가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비닐류는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인 ‘ㅂ’자 형태의 배출물이 많았으나 비구상형 디자인 임을 감안하여 비닐봉투를 보관할 때 나타나는 삼각형 형태를 상징적 형태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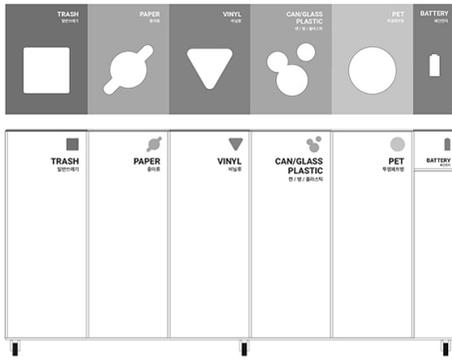
캔, 병, 플라스틱은 버려지는 순간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원형의 단면을 기준으로 하되 3가지 품목이 모여 있다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부여하기 위하여 3개의 원을 심미적으로 배치하였다. 투명페트도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순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형의 단면을 기준으로 하면서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이 버려지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지름이 큰 원으로 디자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폐건전지는 일반적인 직사각형 비례의 형태를 다양한 크기와 종류, 그리고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나 수은전지를 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

[표 2] 분리수거 항목별 픽토그램의 비구상화 전체프로세스

구분	실물	구상화	비구상화 1단계	비구상화 2단계
일반쓰레기				
종이류				
비닐류				
캔·병·플라스틱				
투명페트				
폐건전지				

다음의 그림은 도출된 비구상 픽토그램을 실제 분리수거함 도면에 적용하고 실사모형으로 제작한 결과이다. 컬러적용에 있어서는 설정된 6개 항목 중 종이류와 비닐류, 캔·병·플라스틱류, 그리고 투명페트는 환경공단에서 규정한 색상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쓰레기는 불특정 다수의 폐기물을 상징하기 위하여 검정색으로 품목색상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색상의 조화와 심미적인 효과를 위하여 폐건전지 부분은 빨강색으로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16] 비구상형 분리배출표시 사례



[그림 17] 비구상디자인 적용 분리수거함 실사모형

개발된 비구상형 픽토그램은 분리배출 대상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지만 대상품목이 버려지는 상황도 고려하였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투입구 디자인에도 적용하였고 이는 직관적으로 분리수거의 행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심미성과 분리배출의 흥미를 유발시켜 분리수거의 의미와 가치를 홍보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한 국가나 도시의 정체성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국가브랜드나 도시브랜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의 상황에서 수준 높은 공공디자인과 그와 관련한 문화를 가지는 것은 국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정보가 원활히 소통되고 사용되어지며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움 모습을 갖추는 일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단지 외형적 모습만을 정비 할 것이 아니

라 이야기가 있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공공디자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의 한 분야인 공공정보디자인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접근과 표현 방식으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대안과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공디자인은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해 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지만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정보는 그 목적에 따라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정보를 이루는 구조와 속성, 전달하려는 목적을 파악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디자인은 정보의 인지적 요인 뿐 만 아니라 감각적 자극을 형성하는 지각적 요인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본 논문의 비구상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픽토그램 디자인은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시각디자인이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보디자인은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양적 처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처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데이터의 전달이 아닌 인간이 지닌 감성과 문화적 가치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예술 활동이 되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소통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적 활동이 될 때 개인의 삶은 물론 국가나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단지 한 분야의 픽토그램 디자인이라는 영역에서 확대되어 공공의 영역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정보디자인이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도되는 후속연구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오병근·강성중, 정보디자인 교과서, 안그래픽스, 2011
2. 필립 맥스, 황인화 역,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미진사, 2002
3. E.H.곰브리치, 백승길 역, 서양미술사, 예경, 2003
4. 정미정, 재활용분리수거시설의 그래픽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5.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6.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www.kwaste.or.kr
7.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